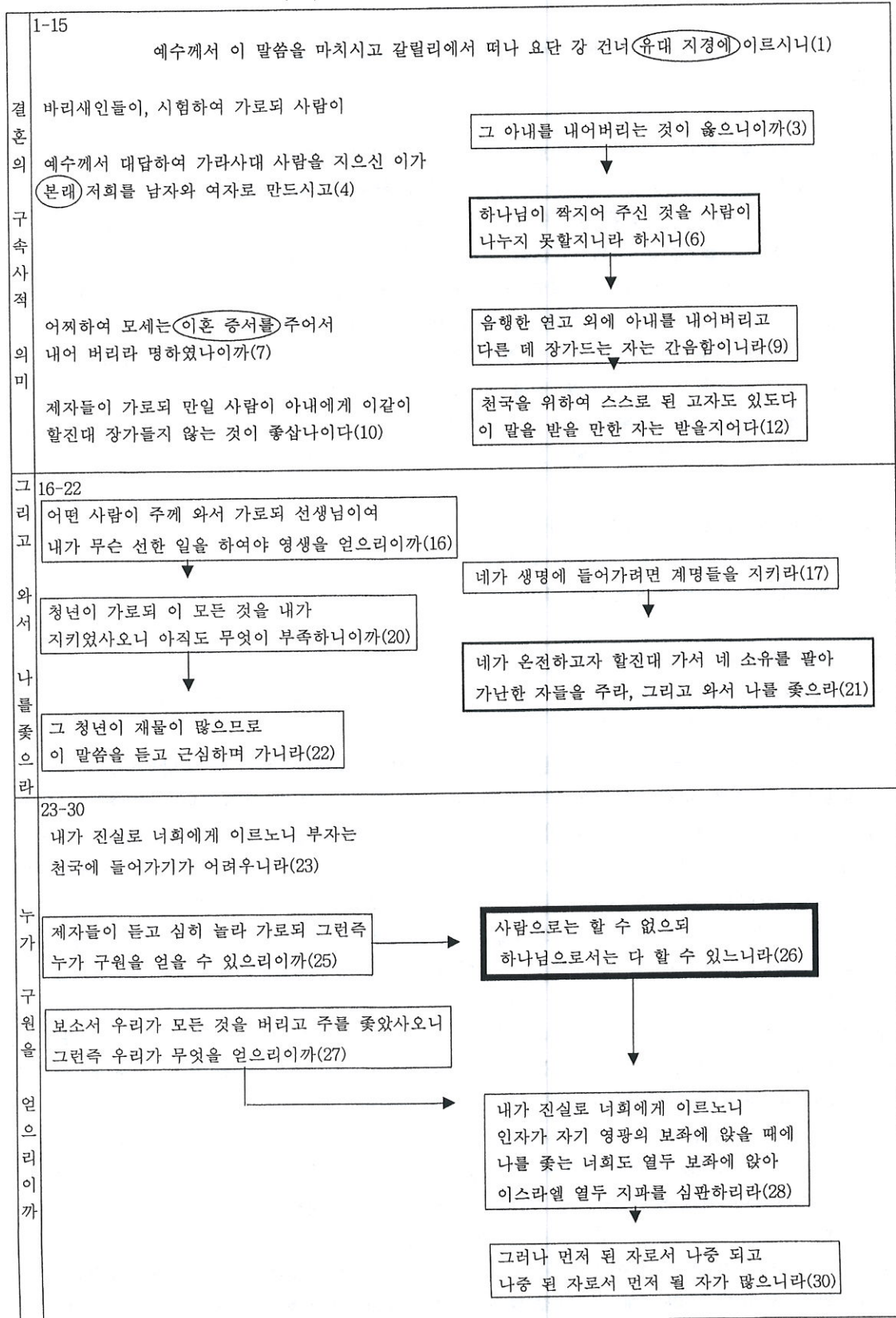


마태복음 19장 개관도표  
주제 :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요절 :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으로 접어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수난예고(16:21, 17:23)를 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본 장의 중심점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문제를 들고 나와 주님을 시험하였으나, 둘을 하나로 짝지어주신 분(첫째 단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둘째 단원)고 묻자,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불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셋째 단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5) 결혼의 구속사적 의미

둘째 단원(16-22)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셋째 단원(23-30)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첫째 단원(1-12) 결혼의 구속사적 의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3).

① 어찌하여 이혼문제를 들어 주님을 시험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될 법합니다. 보다더 이 기사(記事)를 기록케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고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문제가 주님의 대속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약이라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이혼 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극하신 사랑은 우리를 화목 시켜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대신 값을 지불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사오듯(호 3:1-3) 말입니다.

② 바리새인들은,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고 “이혼”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5) 하신 “결혼”에 관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 사람을 지으시고, ㉡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짝을 지어주신 이는, ㉢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6) 하십니다.

③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서게 된 단절(斷絶)이 먼저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